

쿠팡플레이 금주의 추천작: 8월 3주 차

2025. 8. 14.

쿠팡플레이에서 볼만한 추천작을 각각의 링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쿠팡플레이 8월 3주 차 추천작을 소개합니다.

프리미어리그(PL) 개막



스포츠 / 프리미어리그 / PL / 영국 / 2025

“세계 최고의 축구 축제가 돌아온다”. 이번 주말, 전 세계 축구팬들이 기다린 프리미어리그가 드디어 개막한다. 쿠팡플레이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널 등 세계적인 명문 구단들이 소속된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를 국내 독점 생중계한다. 8월 16일(토) 오전 4시(한국 시간) 리버풀 FC와 AFC 본머스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시즌 전체 380경기를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주요 경기에는 프리뷰쇼와 데이터 기반 리뷰 콘텐츠가 함께 제공돼, 팬들은 분석과 재미를 모두 잡은 시청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쿠팡플레이는 개막전을 포함한 주요 경기를 초고화질 4K 스트리밍으로 제공, 선수들의 표정과 공의 움직임, 경기장의 숨결까지 세밀하게 전달한다.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은 물론, 전술적 흐름과 세부 장면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프리미어리그\(PL\) 개막’](#)

브루탈리스트



드라마 / 애드리언 브로디 / 펠리시티 존스 / 가이 피어스 / 미국 / 2025

“걸작으로 기록된 대담한 예술적 비전!”. 전쟁의 상흔을 안고 미국으로 이주한 건축가 ‘라즐로(애드리언 브로디)’. 그는 혁신적인 브루탈리즘 건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지만, 시대를 앞서간 그의 비전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천재성을 알아본 후원자 ‘해리슨(가이 피어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라즐로’는 끊임없이 반대와 압박에 시달리며 점점 더 자신의 설계에 집착하게 된다. 그가 꿈꾸는 건축물이 미완성된 채 멈춰설 위기에 처하는 순간, 영화는 예술과 생존,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강렬한 질문을 던진다. 주인공 애드리언 브로디의 생애 최고의 연기, 기대와 공간을 넘나드는 사운드트랙, 흑백과 컬러를 오가는 감각적인 촬영 기법으로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과 제82회 골든 글로브를 휩쓴 <브루탈리스트>를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보자.

[‘브루탈리스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

8/19(화) 공개 예정



액션 / 톰 크루즈 / 사이먼 페그 / 헤일리 앳웰 / 방 레임스 / 미국 / 2025

“인류의 운명을 건 마지막 미션이 시작된다”. 디지털상의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무기로 인해 전 세계 국가와 조직이 마비되고, 인류 전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존재 자체가 기밀인 ‘에단 헌트(톰 크루즈)’와 그가 소속된 IMF뿐이다. 무기를 무력화하는 핵심 열쇠를 손에 쥔 ‘헌트’는 오랜 동료 ‘루터(빙 레임스)’, ‘벤지(사이먼 페그)’와 함께,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그레이스(헤일리 앳웰)’, ‘파리(폼 클레멘티에프)’, ‘드가(그레그 타잔 데이비스)’와 힘을 합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교묘한 적에 맞선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불가능한 미션의 클라이맥스, 숨 막히는 액션과 스틸이 폭발하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 전작 <풀아웃>, <로그네이션>을 비롯한 시리즈 명작들도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얼빈



역사 / 헌빈 / 박정민 / 조우진 / 전여빈 / 이동욱 / 유재명 / 한국 / 2024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울린 단 한 발의 총성”. 1908년,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헌빈)’이 이끄는 독립군은 함경북도 신아산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한다. 그러나 그는 전쟁포로가 된 일본인들을 만국공법에 따라 석방하는 결단을 내리며, 독립군 내부에 갈등과 균열이 싹트기 시작한다. 1년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뜻을 모은 동지들. 점점 가속화되는 일본의 압박 속, 그들은 한순간도 물러설 수 없는 결심을 굳히고, 마침내 일본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결단의 날, 역사의 물줄기를 뒤흔든 총성이 울린다.

[‘하얼빈’](#)

밀정



역사 / 송강호 / 공유 / 한지민 / 엄태구 / 신성록 / 허성태 / 이병헌 / 한국 / 2016

“누가 밀정인가, 그리고 누가 진짜 동지인가”. 192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송강호)’은 무장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을 추적하라는 특명을 받는다. 임무를 위해 그들의 리더 ‘김우진(공유)’에게 접근하지만, 서로의 정체와 의도를 알면서도 속내를 감춘 두 사람. 믿을 수 없는 동맹 속에서 암투와 회유, 교란 작전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독립을 향한 뜨거운 신념과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진다. 잡아야 하는 자들과 잡힐 수 없는 자들, 그리고 끝내 속일 수 없는 운명. 목숨을 건 첩보전이 시작된다.

[‘밀정’](#)

동주



역사 / 강하늘 / 박정민 / 김인우 / 최홍일 / 김정팔 / 최희서 / 한국 / 2015

“끝내지 못한 청춘의 시, 그리고 우정”. 이름도, 언어도, 꿈도 빼앗긴 일제강점기. 한집에서 자란 동갑내기 사촌 ‘윤동주(강하늘)’와 ‘송몽규(박정민)’는 시인을 꿈꾸는 청년과 독립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청년으로, 가장 가까운 벗이자 넘기 힘든 산 같은 존재였다. 창씨개명을 강요받는 혼란 속에 일본 유학 길에 오른 두 사람. 그러나 일본에서 ‘몽규’는 독립운동에 더욱 깊이 뛰어들고, ‘동주’는 절망 속에서도 시를 써 내려가며 시대의 아픔을 담았다. 서로 다른 길 위에서 부딪히고 갈등했지만, 끝내 끊을 수 없었던 청춘의 우정과 신념. 어둠의 시대를 살다간 두 청년의 뜨거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동주’](#)

직장인들 시즌 2



오피스 코미디 / 신동엽 / 김민교 / 이수지 / 김원훈 / 지예은 / 백현진 / 한국 /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시즌 2, 더욱 강력한 웃음과 함께 돌아왔다.” 월급 루팡과 칼퇴를 꿈꾸는 DY기획의 찐직장인들이 스타 의뢰인과 별이는 리얼 오피스 생존기. 지난 9일(토) ‘민보배’ 조정석과 함께한 첫 화는 ‘명불허전 오피스 코미디의 귀환’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웃음 폭발의 1화에 이어, 오는 16일(토) 공개되는 2화에는 전 바둑기사 이세돌이 ‘AI 시대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DY기획을 찾는다. 모니터 앞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발표하는 모습부터,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 짓거나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까지 다채로운 표정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세돌과 DY기획 식구들이 펼치는 역대급 애드리브 대전, <직장인들> 시즌 2 2화는 8월 16일(토) 저녁 8시 공개되며, 쿠팡 와우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직장인들 시즌2'](#)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



범죄 / 제시 아이젠버그 / 마크 러팔로 / 우디 해럴슨 / 다니엘 래드클리프 / 미국 / 2016

“마술사기단이 함정에 빠졌다!”. 3년 전, 눈을 의심케 하는 완전범죄를 마술처럼 성공시킨 ‘포 호스맨’이 명예를 회복하고 더욱 화려한 복귀 무대를 준비한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전보다 더 강력한 적과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 타킷은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절대 카드’이며, 누구보다 영리하고 교묘한 적의 판 위에서, ‘포 호스맨’은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에 도전하게 된다. 도망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상황. 오직 마술로만 탈출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눈보다 빠른 손’과 놀라운 두뇌 플레이로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친다.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

요거트 슝 살인사건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공개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다큐멘터리 / 미국 / 2025

“1991년, 텍사스 오스틴을 뒤흔든 미스터리한 참극”. 불길에 휩싸인 한 요거트 숭에서 10대 소녀들이 처참히 살해된 채 발견된다. 충격적인 사건은 지역 사회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HBO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요거트 숭 살인사건>은 사건에 얽힌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범죄 수사의 한계, 기억 조작의 가능성,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뒤의 깊은 상실감을 치밀하게 그려낸다.

['요거트 숭 살인사건'](#)

게임 체인지

8/14(목) 오후 8시 공개 예정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드라마 / 줄리언 무어 / 에드 해리스 / 우디 해럴슨 / 사라 폴슨 / 미국 / 2012

HBO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피닉스 라이징>은 배우이자 사회운동가 '에반 레이철 우드'가 가정 폭력 생존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세상에 밝히고, 정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난 지 거의 10년,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정 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피닉스 법'의 공동 발의자로 나서 법 제정을 위한 로비 활동을 주도하며, 제도 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한다. <피닉스 라이징>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상처와 침묵을 끊어내고, 스스로의 서사를 되찾는 한 사람의 용

기 있는 기록이자,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